

기득권 언론과 권력이 빚어온 비민주적 관행

출입처 제도는 주요 뉴스제공 기관을 특정 기자에게 고정적으로 취재하도록 맡기는 관행이다. 이러한 출입처는 대부분 국가나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나 기업이다.

뉴스원들은 출입기자들에게 기사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기자의 취재와 기사작성에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출입처 제도는 기자들에게 편리한 관행인 반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제도이다. 더욱이 정보화 사회의 뉴스환경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권위주의 시절에 유효했던 제도

우선 정보통신의 발달이 출입처 기사실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과거 공중전화도 없고, 팩스도 없었던 시절, 기자실이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동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어디서나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데스크와 기자의 수시 연락이 가능해져 기자들이 명령 즉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취재원 근처를 서성거리면서 사건이 터지기를 대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출입처 제도는 보다 민주화되고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의 언론환경에도 적합하지 않다. 출입처는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권위주의 시절에 유효하던 제도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그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물론 정부기관은 여전히 중요한 취재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결정 만큼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반응도 중요해졌다.

정부 관련 보도는 더 이상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재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있는 국민들의 반응과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응하는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부처의 기사실에 불박혀 있는 기자는 이제 필요가 없다. 정부부처가 제시한 보도 자료를 들고, 국민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민심과 대비할 수 있는 넓은 취재영역을 가진 기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아직도 ‘발표저널리즘’, ‘떼거리 저널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출입처제도에 익숙해짐에 따라 출입처의 공보담당자들이 갖다주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취재관행 때문이다. 출입처 제도에 안주하는 기자들은 언론인으로서 전문적인 취재보도기능을 스스로 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 뉴스추적 어렵게 한다

출입처 관행에 익숙한 우리나라 기자들은 적극적으로 취재원을 발굴하고, 다른 기자들과 차별성을 가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자기 스스로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원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포기했다. 그 결과 언론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깔려있는 부정과 부패를 헤집고 들어가 감춰진 진실을 전달해주는 기사들을 발견하기 힘든 것도 바로 출입처 제도 때문이다. 기껏해야 검찰의 수사발표나 감사원의 적발 보고서를 갖고 흥분하는 것이 우리 기자들의 보편적인 행태이다.

IMF 이후 실직한 많은 증견언론인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출입처 관행으로 인해 현역시절 취재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많은 증견 기자들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하곤 한다.

그들은 기사시절의 취재보도능력을 활용해 잇달아 다큐멘터리 교양서적을 내놓곤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위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전직 기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늘 남이 가져다주는 자료를 보고 기사를 쓰는 습관에 익숙해 있다 보니 스스로 뉴스소재를 정하고, 기사를 발굴하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언론계가 종이신문과 공중파방송의 양대 축으로 짜여져 있던 시절, 독자와 시청자들이 요구하던 주요 뉴스는 스트레이트 뉴스였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독자와 시청자들은 단순 뉴스보다는 재미있거나 심층 분석한 뉴스를 언론으로부터 기대한다. 단순 뉴스는 이제 컴퓨터 통신이나 대안 매체를 통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독자와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뉴스는 그 속에 맥락과 의미와 분석이 담긴 뉴스이다. 독자나 시청자로부터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뉴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층분석뉴스는 각 기자들에게 고정 출입처를 배정하는 경직된 취재방식으로는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다. 출입처제도는 뉴스취재의 구역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뉴스는 구역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진행된다.

뉴스는 호우 속의 강물처럼 역동적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기자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보초를 서면서 취재하고 있는 것이 현행 출입처 제도이다. 강가에서 지켜보는 기자가 아니라 강물을 따라 같이 흘러내려가는 기자만이 그 뉴스를 정확하게 취재 보도할 수 있다. 현재의 출입처제도는 그와 같은 효율적인 뉴스추적을 어렵게 한다. 기자들이 자기 담당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적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언론사 경영자의 입장에서 출입처제도는 득이 될 것이 없다. 출입처 제도란 한명의 기자가 강물의 시작에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취재 보도 해야 할 기사를, 강변 곳곳에 기자를 배치해 강물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인력낭비인 것이다. 과거나 미래나 언론사의 사활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 언론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뉴스를 생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출입처 기자실은 매우 효과적인 언론플레이의 창구로서 취재원들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 기자들이 취재원을 포섭하기 보다는, 기자들이 취재원들에게 포섭되어 정부나 기업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출입처의 기자실은 해당 부처를 취재하는 모든 언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일간지와 방송 등 기득권 언론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다.

이처럼 특권화된 우리나라의 출입기자제도는 다양한 언론부조리의 근원이기도 한다. 기자들간의 동업자 보호의 식과 상호담합으로 인해 뉴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행할 수 없는 항응접대, 촌지수수, 엠바고 등이 기자단, 혹은 기자실이라는 집단을 이용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 제약

지금까지 우리 언론계에서 관행상 유지되어온 출입처 기자실 제도는 기득권 언론과 권력과의 이해가 맞아 유지되어온 비민주적 관행이었다. 출입처 기자실 제도는 기득권 언론이 아닌 대안 언론이나 군소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이면 누구나 균등히 누려야 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기자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정부나 기업의 언론플레이를 유도하며, 언론인의 자질향상에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자실 형태로 운영되는 현행 출입처 제도는 하루속히 바뀌어야 한다. 특정 기득권 언론에게만 적용되는 출입기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소속에 관계없이 기자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는 보장해야 한다. 굳이 기자실이 필요하다면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폐쇄적 독점적 공간이 아니라 모든 언론인들에게 늘 공개되어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한편 각 언론사는 취재대상기관과 지역을 중심으로 짜여진 현재의 출입처 제도 대신, 사건의 특성과 뉴스 분야별로 기자들의 취재영역을 결정하는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취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청와대나 국회처럼 중요한 정부부처에는 출입기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 출입기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건의 성격에 맞춰 출입처에 관계없이 취재영역을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역동적인 취재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언론이 살아남는 길은 취재보도 기능을 심분 발휘해 부가가치가 높은 뉴스와 정보를 독자와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자들이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통해 창출하는 것이지, 출입처 공보담당자들이 가져다주는 보도자료를 적당히 옮기는 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출입처 제도로 구획화된 전근대적인 취재시스템으로는 더욱 복잡해지고 유동적으로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뉴스를 제공할 수 없다.

독자와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현행 출입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장호순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